

合

喜生会

리는 '아름'을 가지고 부를
제로 삼아 힘찬 싸움이 피
요하다.

그러기위해선 먼저 内的의
의사의 교류가 필요하다. 서
로의立場을 우리는 尊重하
면서 前進해야한다. 田態依然
한 자리에서 벗어나 앞을보
다 보면서 우리교회의 宣敎
八十年的 宣敎戰略을 짚아
는 八十年이 되기를 바란다
그리할때 우리교회는 남로새
로와지는 敎會가 될것이다

会

